

2006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yeoyeon.cy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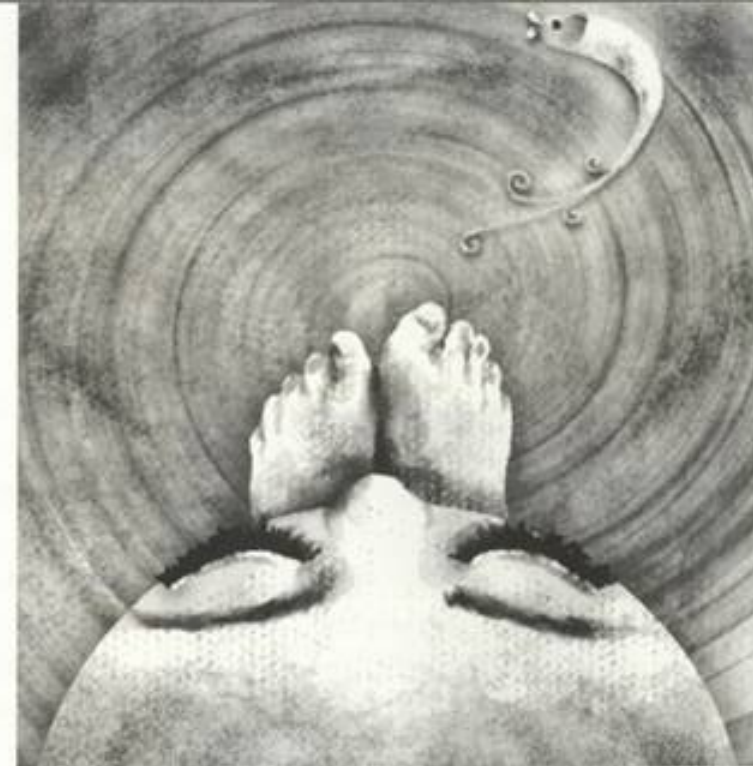
2006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2006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yeoyeon.cyworld.com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위한
자치규약 이야기

CONTENTS



성평등 자치규약

- 02**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 규약, 그 의의에 관하여
- 04**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07** 성폭력사건지원에 필요한 이야기
- 10**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성폭력
- 12** 왜 우리는 이성애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가
- 14** 성평등 자치규약 Q&A

단대이야기 **16** 공대 이야기

17 상대 이야기

18 문대 이야기

20 여연자연을 소개합니다

여성공동체 소개

21 총여학생회 이주여성노동자학생연대팀 구공턴

22 여성신학회 물구나무

23 여성합합공동체 I WILL

24 사회학과 여성학회 뎀수다

25 성폭력 피해 대처법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 규약, 그 의의에 관하여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불평등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타인의 불편함을 이해하는 감수성, 성별/성적 지향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반성폭력'은 평등한 관계맺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존중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왜 우리는 다시, 성폭력을 이야기하는가.

대학이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연세대라는 공간 속에서 성폭력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성폭력을 이야기할 때 주춤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가.

이미 나의 몸속에 내재된 가부장적인 일상성은 성폭력을 나오는 거리가 있는 먼 이야기로, '성폭력=강간'이라는 잘못된 공식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강간만을 성폭력이라 보는 이러한 인식은, 성기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성폭력 사건'과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 혹은 사소한 실수'를 구분하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실제 남성 세수일리티의 강제적인 실천이 보편화 되어 있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다른 무수한 성폭력 피해를 삭제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저 멀리 있는, 정신 나간 가해자와 온 나쁜 피해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며, 불행히도 성폭력 사건 역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성폭력'이란 개념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기존에는 성폭력이라 명명할 수 없었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적인 행위들, 그러나 분명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들을 '성폭력'이라 지칭했을 때의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폭력을 무화

시키고 덮어버리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각이 그만큼 일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문제는 공동체 모두가 가지고 가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의 문제 의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공동체의 단결'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묻혀지고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학생단위들의 현실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학 문화는 분명 일상적인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찰 없이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하긴 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성폭력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위한 약속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학내 공동체의 가부장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2000년, 학생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제정되었고, 지난 1월 '성 평등 자치규약'으로 개정되었다. 학내 반성폭력 운동과 흐름을 같이 해온 자치규약은, 특히 '친해진다'는 명목 아래 성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새터/OT 기간에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 근절 운동을 넘어서서, 공동체 내의 남성중심성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과/반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묻혀져 왔다는 것을 돌아보게 했다. 응원, FM, 술자리로 대표되는 '주

류 문화' 속에서, '모두의 즐거움'이란 이름 아래 개인의 불편함이 감수되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모두의 즐거움'이 비장애 이성애 남성들의 경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은, 여전히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위해 남은 과제가 많음을 시사한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불평등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타인의 불편함을 이해하는 감수성, 성별/성적 지향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반성폭력'은 평등한 관계맺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존중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는 대학 사회의 성별 권력, 이성애 중심주의, 권위주의를 지적하고, 이러한 가부장성에서 비롯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과의 약속이다. 공동체 내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성찰, 성폭력에 대한 고민 없이 '평등한 공동체'는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대학 문화의 가부장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는 바로 가부장적인 인식과 성별 권력이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치규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성원 스스로의 성찰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학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by_ 18대 총학생회장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 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섹터, 대동제, 농활,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예)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술자리에서 자신의 상구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예)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범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예)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예)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임이 강요되는 경우

- 외모만을 잣대로 차별을 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FM 및 각종 게임의 예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보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 중심주의란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이며 반드시 이성애자여야 한다는 독단 아래 오직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 올바른 것이라 여기는 가부장적 통념이다. 이성애 중심적 폭력은 이성애 외의 경향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비난하고 주변화 시킴으로써 성적 다양성을 억압한다. 또한 이성애 중심주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특정 성 역할을 강요하면서 남성 우월의 성별 권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단일한 성 정체성을 강요할 수 없으며 특정 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성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매우 다양하며, 비이성애자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여성과 남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개개인 모두가 이러한 성적 다양성 속에 있다. 우리는 당연히 되어 왔던 이성애 중심적 풍토를 낫설게 보는 연습과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언행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다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증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성에 중심적 커를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비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 MT나 수련회 등의 행사에서 식사 준비나 청소 등의 일이 성별분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당번을 지정한다.

- 공동체의 행사가 1박 2일 이상 진행될 경우, 여학생들의 취침 및 탈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따로 보장한다.

○ 자치규약 준수를 위한 학생회의 의무

- 새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5.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 2차 개정 : 2006.1.21

성폭력 사건지원에 필요한 이야기

성평등 자치규약 3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른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경험을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성폭력은 언어성 폭력에서부터 물리적인 성폭력까지 다양한 모습을 갖고 발생한다. 이는 학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티, 새터, 대동제, 연고제 등 각종 행사나 일상적인 술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기가 쉽지 않고, 말한다 하더라도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언어만으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란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의 경험을 그들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며 힘을 주고받는 지원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학생단위는 피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동체 내부의 2차 가해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원활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원을 살피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폭력사건지원의 기본전제: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사건 지원에서 가장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사건 해결 주체로서 피해자가 고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성폭력 사건 처리가 얼마나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성폭력 사건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경험이 의심받고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비난 받는다. "여자가 늦은 시간에 거기에 왜

있었느냐?’, ‘왜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지 못하였느냐?’ 하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즉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해 비난하는 주변인들에 의한 가해이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끊임없이 증명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에서 수용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축소하여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전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가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사건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선행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성폭력 사건 지원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학내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사건은 종종 묻히고 만다.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다들 즐거워하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섣불리 표현하기 어렵다. 불편함을 구성원들에게 말한 다 하더라도 ‘다들 즐거워하는데 재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어.’, ‘재밌으면 그만이지, 저런 말을 할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써의
성폭력 사건 지원을 통해
여성의 언어를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지지하고 힘을 줌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이다.

것까진 없잖아.’ 등의 생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성폭력을 ‘모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쯤으로 규정짓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는 재고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른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경험을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등의 일로 인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성폭력사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사건 접수 시 지원자는 진술서, 녹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꼼꼼히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 같



다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지원이 진행이 되어 피해자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의 충동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피해 상황을 되묻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은 섬세함을 요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 말을 나누고 사과를 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지원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편해 할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의 활동 범위에서 격리 시키는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도록 방치될 경우 피해자의 불편함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의료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지원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총여학생회실나 성폭력상담실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총여학생회실에 사건이 접수되면 처리는 성폭력상담실이 맡게 되고 총여학생회는 피해자 상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성폭력상담실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방법은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나뉜다. 피해자가 비공식적 해결을 원한다면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사건은 상담일지에만 기록으로 남고 공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공식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교수, 교직원, 학생 위원으로 이루어진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며, 이곳에서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등 필요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

학내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채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수면위로 드러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너무나도 부족한 이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의 피해와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써의 성폭력 사건 지원을 통해 여성의 언어를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지지하고 힘을 줌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이다.

by_ 18대 총여학생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성폭력

성평등 자치규약 4

하지만 우리의 일상엔 성폭력을 품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을 품고 사는 일상 속에서 살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이라는 강제 성기 삽입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허나, 성폭력이 강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을 품고 사는 일상'이라는 제목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사회 전반의 관계에 드러나고 있는 성적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성적 자율권 침해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상' 생활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느냐의 반발은 우선 그 '일상'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일상이냐는 물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실질적으로 소수자, 약자의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고, 이 위치는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어진 것이다. 이미 이러한 사회 구조가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형태의 언어와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들을 자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상' 생활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느냐의 반발은
우선 그 '일상'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일상이냐는 물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스러운 것으로 묵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의이자 목적이다.

그런 일상 속에서 성폭력이라고 말한다는 것

성폭력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수위'에 따라, 어떤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어깨에 손을 얹는 거나, 다리를 쳐다보는 것은 성폭력이다¹⁾, 라고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가해자와의 권력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성폭력은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폭넓게 사용되며,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행위는 남성 중심 사회의 성적 권력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전복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복성 때문에 술자리에서 새로 들어온 새내기를 챙겨준다고 손을 만지작거리는데 선배나 여자는 타고나기를 순종적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교수,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으려는 애인에 둘러싸인 여성의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발에 부딪히곤 한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는 이를 피해자의 '민감함'으로 치부하여 성적 권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언어로는 이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며,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준'인 남성의 경험을 흔들어야 하기 때

¹⁾ 이런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손을 어깨에 얹는다고 다리를 쳐다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했을 경우에 '꼭 그 정도까지고'라는 식으로 2차가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문제제가 되지 않는 성폭력 중 하나이다.

문에 사회는 성폭력 사건을 지적하기 보다는 은폐하려 한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성폭력은 새로운 언어이며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이해 가능하다. 성폭력을 남성의 언어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결국 다시 여성의 피해를 무시하고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은 나의 수치가 아닌 그들의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변인들 역시 피해자의 시각에서 성폭력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성폭력에서만 대두되는 피해자 책임론이 '일상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범죄는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 "그런 상황에 니가 취한 행동이 적절하지 못 했어" 라는 말을 하며, 성폭력 범죄에 피해자 유발론과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정당화한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필요한 일은 성폭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피해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폭력을 피해자의 수치가 아닌 가해자의 범죄로 받아들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by_ 18대 총학생회장

이성에 중심주의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이성애자이며 이성애자이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이성애만이 옳은 것, 정상적이라는 것이라고 여기는 가부장적 통념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러한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중심주의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은 상당한 폭력으로 작용하죠.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해 낯설게 보기,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일입니다.¹⁾

왜 우리는 이성애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성평등 자치규약 5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인류 역사상 여러 형태의 사회가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동성애를 억압한 적은 없었어요. 동성애자/이성애자의 이분법적 구분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고요.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 남성간의 사랑을 '천상의 사랑'(소크라테스가 동성애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쓴 말)이라 칭했고, 이성간의 성관계는 재생산의 도구로만 가치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규정은 아니었죠. '사랑'에 위계질서가 있는 것도 웃길뿐더러, 그 위계는 여성 보다 남성이 우

월하던 주장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로마의 경우나 여러 가지 문헌과 사례들을 볼 때, 성적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어요. 지금은 어쩔 이렇게 전사회적으로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가 만연해 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지.

산업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시작과 함께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성애 '결혼'과 4인 정상가족에 대한 '꿈과 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 간 법률혼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통해, 자본가들은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무임으로 전가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1844년부터 여성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제한되었고, 1872년에는 노동계급의 여성이 보모를 고용한 후 자신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생겨났습니다.²⁾ 노동자를 근대적인 관념(시간 지키기, 위생, 건전한 여가 등)에 맞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성을 가사노동에 묶어두려 한 것이죠. 아동과 남성이 규칙적인 근대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강요되어 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우리는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라 믿고 살고 있지만 사실 41%만이 그런 형태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성애만이 옳고, 유일한 성적 정체성이라 믿으며 이성결혼만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인정' 하는 이성애 중심주의는 여/남의 이분법에 의한 전통적인 성역할을 정상성으로 여기게 하면서 기존의 남성우월의 성별권력 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비이성애 성적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2005년 뜨겁던 여름, 세계 각국 여성학자들이 모인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 이화여

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폐막제 행사 중 여성학대회에 참여했던 레즈비언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레즈비언인 사람을 다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일어섰고, 진행자가 자신의 엄마가 레즈비언인 사람 일어서라 말하자 또 몇 명이 일어섰습니다. 딸이 레즈비언인 사람, 친구가 레즈비언인 사람, 이웃이 레즈비언인 사람, 선생님이 레즈비언인 사람.....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많은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주변에는 없다'며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는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성애 중심주의가 비이성애자인 다양한 성적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목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말이지요. 분명히 있지만 보일 수 없는, 보여서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³⁾ 동성애든, 양성애든, 이성애든 단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뿐인데 말입니다. 인간의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평생 일정한 것도 아닌데, 현재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이름붙이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무도 이성애자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이성애에 '물든' 다거나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말이지요.

다시,

이성애 중심주의, 정상가족주의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많은 이들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유산 상속, 세금, 육아, 입양 등의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강가족기본법'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상가

족을 꾸준히 외치며 점점 늘어나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대안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죠. 이 폭넓게 이성애중심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특히 비이성애자의 경우 더욱 사회보장을 받고 사회적 자원을 갖는 것이 힘듭니다. 커밍아웃(스스로 성적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하거나 아웃팅(타자에 의해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당한 경우에는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지 '다수'와 다른 성적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들이 겪는 엄청난 차별과 억압은 이렇게 몇 줄의 글로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인 것이죠.

이 사회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많은 이들은 이성애자인척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호모포비아를 드러내는 발언을 들어도 길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만 하는 폭력적인 상황에 일상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학내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 뿐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자치공간에서, 강의실에서, 술자리에서, 동성애를 희화화하며 '웃음'의 소재로 삼고는 합니다. 상대방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성애 중심적 커플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심지어 '대학 문화' 즈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드러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치규약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치규약에 적힌 몇 마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성소수자 인권이 단순히 '폭력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이성애중심주의를 비판과 성찰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두어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 나갈 것인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by_ 18대 총학생회장

1) 그렇다고 해서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성애' 자체가 옳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들은 다들 아시겠죠?

2)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사울 윤기환, 출판: 숲, 수천 타이완 지음 / 정민 윤리 연구서

3) 몇 년 전 출간된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는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꽤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비밀'을 숨겨 그 사람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범죄도 심각한 수준이고요,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살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1. 성평등 자치규약은 무엇인가요?

자치규약은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스스로 토의를 거쳐서 만든 약속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차별이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학교 안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점검하고,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을 여성의 시각으로 문제제기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성폭력에 반대하는 자치규약을 만들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 계속되어왔고, 2000년도에 '새터 反성폭력 내규'라는 이름으로 새터와 OT에서 학교 안의 모든 공동체가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해 겨울, 새터와 OT뿐 아니라 학내 모든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함께 지켜나가면서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의미의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성평등 자치규약 6

성평등 자치규약

Q & A

2. 여연자연은 무엇인가요?

본 자치규약 자료집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연대 (여연자연)'의 이름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여연자연은 연세대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학생자치단위들이 모이는 회의 테이블입니다. 겨울 내내 자치규약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한 준비를 주로 해왔고, 앞으로는 세미나도 해보고, 여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학회나 여성소모임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회의의 진행방향과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3. 학교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나요?

2005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상담사례의 83.2%인 1,79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학원 내 사건은 9.4%에 해당하는 20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사건이 학교 외부의 기관보다는 교내 성폭력상담실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학내 공동체의 모임자리나 강의실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으로 인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집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과반모임이 정신없이 계속되는데, 자치규약을 일일이 신경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평등 자치규약을 알아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

금까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집 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편견이 스스로 없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왔을지도 모르는 내 안에 고정관념을 살펴보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자치규약에 대해서 공동체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료집까지 발간하는 이유는 자치규약이 한 번 쓰여 본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치규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혹시 내가 그동안 성폭력에 대해 잘못 생각해왔던 것은 없는지, 성별에 따른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훨씬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5.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공개자보를 붙인다는 게 사실인가요?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처방법과 처리과정은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학회나 성폭력상담실에서 자보를 통한 사건을 공개하거나 가해자의 사과문을 붙이는 것은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자칫하면 뒷소문만 무성할 수 있는 성폭력사건을 공식적 기관의 발표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과 자보나 공개 자보를 붙이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내용은 신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없이는 절대로 자보를 통해 사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항상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 지원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공동체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

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 성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면 주변에서 '그것도 성폭력이냐'고 얘기하곤 해요.

본 자료집의 다른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만연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며,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예민한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를 해도 귀찮은 걸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듣게 된다면, 우선 피해자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면서 그 경험을 천천히 주의 깊게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폭력이냐'고 묻기 전에, 피해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폭력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보기엔 그 일이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어떻게 성폭력으로 명명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성폭력에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총여학생회 등의 여성단체에 문의하세요. 또한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성폭력이라는 명명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피해자가 왜,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한다고 말해주세요. '정말 그 일이 성폭력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by_ 18대 총여학생회



2004년에 여학우 비율 15%를 찍었고, 꾸준히 공대의 여학우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단대와 비슷하게 혹은 더 심하게 공대 내에서 여학우의 입지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공대 여학우는 입학 때부터 못 선배들(정확히 남자선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

새내기 조 편성을 할 때도 꼭 조에 한 명씩은 여학우를 넣고, 그 조의 이름은 그 때부터 '여학우 누구네 조'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해 반발이 있다면 '여학우가 조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분위기가 좀 살아'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영 어두침침하고 암울해서 못봐주겠더라' 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한 마디만 던져주면 됩니다. OT때부터 여학우에게 '기대' 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단상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학교에서 feminism의 f도 한 번 듣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공대이기 때문에, 자치규약 또한 받아들여지기에 한참 버거운 듯도 합니다. 새내기가 한 반에 80명에 육박하는 공대에서는 자치규약 교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자치규약 이야기만 나오면 '야야, 내규에 신고해!' '너 그러면 총여가 잡아간다' 등 미스테리한 말이 오갑니다. 또 공대 새터에서는 모두 모여 반별 공연을 볼 때 마치 연례행사처럼 꼭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반이든, 그게 어떤 장면이든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 시작하면 '내규! 내규! 내규!'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 외치는 줄도 모르고, 아니 사실 내규가 뭔지도 모르면서 옆에서 외치니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뚱맞은 장면은 매년 기대에 부응해 재현되며, 이는 공대에



서 자치규약의 입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치규약의 희화화는 자치규약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문제 제기하려는 목소리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의 제한적인 상상 안에서 자치규약은 '무시무시한 것'이고, 그를 통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사

이좋은 공동체를 이간질' 시키거나 '불쌍한 학생 한 명 매장시키는 것'이거나 '똥생긴 얼굴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예민한 페미니스트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이라나요. 이처럼 전혀 알지 못하면서 뻔뻔하게 들이대는 경우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자치규약을 이토록 두려워하며 애써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고 감히 진지하게 문제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담론들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뭐가 켄겨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입니다. 공대 안의 가부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대의 남성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옴모론이라고 하겠지만(아니면 설마 뻔뻔하게 난 마초가 아닌걸, 이라고 하려나요).

처음으로 대학 생활을 접하는 OT와 새터에서부터 앞으로의 개념있는 대학 생활, 나아가 사회 생활을 위해서 자치규약은 의미 있고 필요합니다. 비웃고 필요 없다고 판단해버리기 이전에, 자치규약에 대해, 자치규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부디 올해 공대 새터에서는 '내규! 내규!'라는 우스꽝스러운 외침소리가 좀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열심히 그렇게 외치면 가뿐히 한심하다는 눈길로 바라봐주시길.

by. 별도사공학과

2006년 상대 새내기 맞이 준비를 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후배를 맞이하는 선배로서 성평등 자치규약의 필요성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저의 제안에 돌아

온 대답은 "숙소 안에 자치규약 자보 붙이면 됐지, 뭐" 입니다. '새터 숙소 안에 붙인 대자보는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작년 새터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안에 붙인 것 그 이상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제가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면 관심이 없어서?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자치규약 자보를 붙이자마자 왜 붙여야 하나며 투덜대던 선배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 또 다른 기억도 납니다. 자치규약 항목에 예시로 붙은 사례들을 희화화 하는 선배들의 대화에 함께 웃고 맞장구도 쳤군요. 하지만 술자리가 무르익어갈수록 그것은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함께 웃고 떠들었던 자치규약의 예시들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폭력이란 그리 먼 나라,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새터에서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반 행사 뒤풀이-대부분 술자리-가 있을 때 마다 늘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새터와 입학 직후에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느끼던 불편함 혹은 불쾌함은 이제 익숙함으로 변해 갑니다. 아니, 익숙함이 라기보다는 순응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학우들은 말합니다. '불편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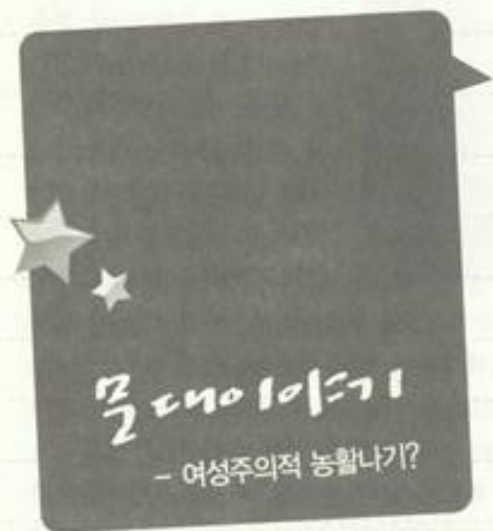


싫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은 '분위기를 켜다', '즐거운데 왜 찬물을 끼얹느냐'라는 식의 것이 대부분입니다. 反성평등적 분위기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여학

우들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입학할 때에는 여학우가 훨씬 많았는데 학기가 지나고 연말이 되어 갈수록 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여학우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기만 합니다. 반 활동에 참여하는 여학우의 숫자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 단지 여학우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 분위기니까'라며 순응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 평등 자치규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전한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 생각에도-이전의 내규와 비교했을 때 많은 점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만-아직까지 고쳐나 가야 할 지점, 바뀌어나 가야 할 지점들이 다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규가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개선되고 있을 동안 그런 말을 하는 당신들은 얼마나 변화했나요? 스스로 변화하려는, 움직이려는 노력은 해보았나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걸음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그 한걸음을 함께 내딛지 않았습니까?

by. 상대의 어느 학생



지금까지 농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새롭게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현장활동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농민 분들과 무엇을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이 자리 잡을 공간은 이제껏 없었던 것 같다. 농활기간중 발생했던 무수한 언어적·신체적 성폭력과 남성의 시각에 맞추어진 농활 문화들은 지금껏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성차별적 상황이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랬기에 작년 문과대 농활대에서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이 전면에 제기된 것은 때늦은 느낌은 있지만 분명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제야 문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여전히 성차별적인 상황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작년 문과대 농활대에서는 미리 참여하는 단위별로 여성주체를 만들고 각 농활대 내에서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교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성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잠자리 등에 있어서 여/남이 각각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제껏 농활대에서는 남성 농민 분들을 당연하게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이 철저히 남학우들의 시각과 편의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왜 남학우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진 않았을까?) '아비님'

이나 '아저씨', '삼촌'과 같이 여/남이 모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호칭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농민 분들이 여학우에게 술을 따르라고 얘기하거나 성폭력적인 언행을 하려고 할 때는 주변에 있는 학우들이 자연스럽게 제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몇 가지 긍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더욱 많이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농민 분들과 농활대 모두에서 이러한 여성주의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경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해 각 단위별로 사전에 충분한 교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농활대의 여성주체들 역시 여성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민회에서 당장 농민들의 문제가 급한 데 왜 여성주의를 얘기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농민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농민 분들을 접할 때 여성주의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나가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의 상황이, 관습적 성관념에 의한 남녀분업의 상황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도록 만들었다. '일 잘하고 술도 잘 마시는' 남학우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농민 분들과 어울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했다. 숙소에 박걸리를 들고 찾아오는 것도 밭에서 할 일을 지시하는 것도 언제나 남성 농민분들이었으며, 여성 농민분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농활기간 내내 접하기 힘들었다. 당번을 정해서 남녀가 모두 식사주변을 맡게 한 경우에도 식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국

여학우가 되었으며, 또 소소한 간식이나 부엌정리는 '자연스럽게' 여학우가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번 농활은 성폭력적인 상황들과 성차별적인 문제들이 아직은 농활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던 기간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아직 스스로가 그러한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 많이 매몰되어 있고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갈 언어와 경험이 미흡하다는 것을 체감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농민 분들과의 관계맺음에서 반성폭력 내규-여성주의적 농활에 대한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던 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기에 농활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왜 농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탄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활이 농민 분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듣고 교육받는 장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는 장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여성주의적인 감수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농활이라는 과정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은 결코 빠질 수 없고 빠져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된 농활을 경험할 때에야 우리는 농민 분들과의 진정한 공감과 소통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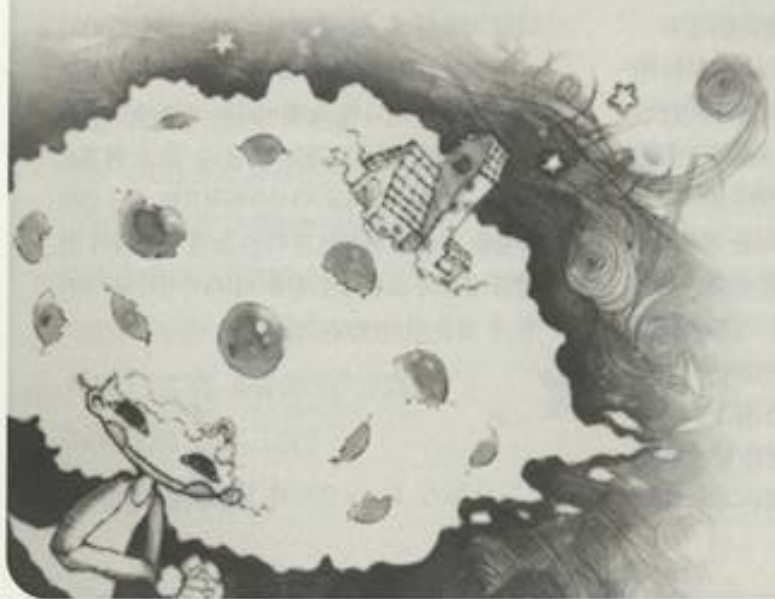
by_ 갈래(불어불문 04)

농활이 농민 분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듣고 교육받는 장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는 장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여성주의적인 감수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농활이라는 과정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은
결코 빠질 수 없고 빠져선 안 될 것이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 연대

여연자연은 2005년 가을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내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학내 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화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등의 모임으로 이어져왔고,
 여연자연 역시 이를 이어받아 여성의 시각으로 학내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여연자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학내에서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소모임을 알고 싶은 분들, 여연자연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연자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커뮤니티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http://yeoyeon.cyworld.com>

yeoyeon.cyworld.com



여성공동체 소개



이주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총여학생회 이주여성노동자-학생 연대팀 〈구공탄〉

우리 사회에는 유독 '표준'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형화된 틀 속에서, '표준'이라 불리는 그 이외의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분명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표준'이 과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 왔는지,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배제해왔는지의 역사이다. 단일한 가치에 길들여진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표준'의 영역, 그리고 '노동'의 영역에서 쉽게 남성 노동자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현장에서 일하고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자본에 질식하는 사회, 그 속의 여성노동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공조 속에서, 여성의 노동은 남성 노동에 비해 주변화 되었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은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된 가족제도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사노동은 '정상가족'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에게 무임으로 떠넘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무게는 남성의 그것에 비해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다. 86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중 80%가 바로 여성이라는 점, 가사노동 외의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성별화된 폭력들, 착취와 억압을 존속하려는 그들의 논리만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이제 보다 계급적으로 사고하고, 실천으로써 마주치려고 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 모두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 그것에 대항함으로써 해방을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여성주의의 출발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과 만나다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2004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투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한국 사회 속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단속 추방과 사업장에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그 중에서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성폭력을 겪어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여성이며 외국인이며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이중, 삼중의 착취에 부딪히게 된다.

작년 10월, 계급적인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모임에서 출발한 〈구공탄〉은 여성주의를 통해 그녀들과 대화하며,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조직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학내에서의 여성주의/ 정치 경제학 세미나, 이주노동 소식지의 여성주의 칼럼을 연재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 학내에서의 신문 발행과 간담회 등을 계획 중이다.

표준에 익숙한 사람은 '차이'를 거부한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 사회 속에 존재하고, 존재하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표준에의 전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기반 위에서,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상적이지만 견고한 것들에 균열을 내는 운동, 이것이 〈구공탄〉이 지향하는 연대활동이다.

〈구공탄〉과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011-1716-9767 (아무도)

club.cyworld.com/gugongtan-06

여성신학학회 물구나무

물구나무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안에 있는 여성신학동아리입니다. 기존 학회의 틀을 조금씩 바꾸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모듬살이로써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신학에 대하여 실제 신과대 안에 개설된 강의도 매우 부족하고 또한 여성의 방식과 기독교를 함께 실천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구나무는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한 마당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여성신학'은 뭐냐고들 많이 묻지요, feminist theology 라고도 부르는 여성신학은 신학을 여성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여성주의 신학'이 아니라 여성들의 관점과 성별적인 요소 그리고 여성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을 하는 '여성신학'이라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실제로 '여성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많은 학문적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음마 단계이며 특히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도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등을 최근의 새로운 신학으로 분류하여 강의가 개설되고 있지만 '여성신학'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역자나 사역자 분들은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도처에 있지만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지요. 많은 평신도중에 여성들이 많지만 평신도와 사역하는 곳에서는 많은 남성목회자들에게 의해 그들의 시각으로 해석되는 성경과 교회문화가 있습니다. 물구나무는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류적 신학, 주류적 가부장제에 도전하며 여성으로써 물구나무서서 소리치기 위하여 같이 활동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관계맺기와 실천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하느님어머니가 어색하지 않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신과대분들 및 기독교학생들, 여성신학에 관심있는 여러 학우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물구나무에 문을 두드리세요.

동아리방 : 신학과 지하1층 동아리실 문을 여시면 맨 앞에 있습니다.

연락처 : 진아 016 · 9343 · 5601

여성힙합공동체 I WILL

- I WILL MAKE YOU HIGH

연세대학교 06학번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심코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었을 때, 손끝이 저릿해지면서 눈앞이 아득해지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뛰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귀에 닿은 율림이 심장으로 전해지고 빠르게 온 몸으로 퍼져서, 몸을 일으켜 마구 달리지 않으면 안될 것만 같은, 나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픈 충동을 느껴보셨는지요? 뜨겁고, 짜릿한,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그 순간들을, 경험들을 만들어나가는 곳. 연세대 여성힙합댄스팀 I WILL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8년 창설된 이래 8년째 꾸준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I WILL은 학기 중 1주 2회, 방학 중 1주 3-4회 함께 모여 뉴스쿨, 걸스 힙합 등을 연습하며 공연을 준비합니다. 매년 3월, 5월에 작은 규모의 무대를 갖고, 9월에는 정기 단독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준비하고 있는 3월 무대는 06학번 여러분을 환영하는 깜짝 공연 형태로

로 치러질 것입니다. 캠퍼스 어딘가에서 있을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며, 'Be high'를 원하는 06학번 아월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 WILL" MAKES YOU HIGH?

저희 활동 모습과 기타 문의는

모두 www.cyworld.com/iwill1999 에서

연락처 : 모노 019 323 1572



연세대 사회학과 여성학회 펌수다

모임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회 : Fem-sudha (이하 펌 수다)는 2005년 3월, 처음으로 만들어진 세미나 모임입니다. 펌 수다는 연세대학교 학부 과정 내 여성학 관련 커리큘럼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사회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으로, 학년이 다른 총 15명의 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펌 수다는 여성학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커리를 함께 나누고, 그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인 Fem-sudha는 여성주의를 뜻하는 'Feminism'과 마시는 이에게 생명력을 전한다는 신비의 감로수 'Sudha'의 합성어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Feminism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여자와 남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다 좋은 세상에 대한 함께 꾸는 꿈을 의미합니다.

활동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회 : Fem-sudha는 앞으로 여성학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두루 읽고 함께 토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직접 쟁점을 찾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처럼 과 마찬가지로

매주 1회의 정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정기적인 모임 중 한 학기에 2번 특강을 듣거나 여성 영화제를 보러 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적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본 세미나의 가장 큰 목적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의 '성차'가 아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성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습니다. 차이를 넘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차', 그것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제도 및 장치, 문화적 기제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의 성을 이해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나아가 '성차'를 형성하는데 매우 주요하게 활용되는 개념인 Gender, Sexuality, Embodiment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사회를 조직하는 성 권력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것 역시 본 세미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일상의 여성학", "여성의 몸"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연락처 : 신선미 011-254-4118

성폭력 피해대처법

과, 반,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중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이고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내가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불쾌감과 불편함, 그리고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쾌한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마음이 찝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에 대한 지원,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학내 성폭력상담실이나 총여학생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총여학생회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
empower@yonsei.ac.kr / 02) 2123-3645

교내 성폭력상담실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
helper@yonsei.ac.kr / 02) 2123-2118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쪽지를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신고하고 싶다면 <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www.cyberhumanrights.or.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발생시간과 해당 URL 및 가해자 ID, 캡처 화면이나 갈무리한 채팅 내용 등을 신고 양식에 맞게 정확히 표기해서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에 상단 메뉴 중 [신고] → [신고 안내]에 나와있습니다.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강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당황함과 불쾌함에 사위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길 바라더라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및 증언 확보

- 사건 직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곧바로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발견되는 피나 정액을 증거로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단서도 꼭 끊어두세요.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가해가 있었던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가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종이방이나 지퍼백에 넣어둡니다.

2.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원하신다면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락하세요.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 338-2890~2 / ksvrc@chol.com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02) 739-1366~7 / fc@womenlink.or.kr
- 여자경찰관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기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울 지방 경찰청 여형사 기동대 : 02) 778-8080